

대법원, 낙태 이어 낙태약 규제 검토



▲ 경구용 임신중절약 사진=shutterstock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대선을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가운데 미국 사회에서 민감한 낙태 문제가 또다시 정국의 향배를 가를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낙태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이다. 현재 미국에서 추산되는 낙태의 절반가량이 이들 약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미페프리스톤 판매는 유지된다.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며, 판결은 대선 정국의 한복판인 내년 6월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CNN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보수로 기운 법정에서 낙태권 폐지에 이어 또 한 번 낙태 문제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다."며 "낙태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대선 투표 꼭 한다" 4년새 57%→49%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젊은 유권자층의 투표 참여가 4년 전보다 저조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워싱턴포스트(WP)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치연구소(IOP)가 지난 10월23~11월6일 18~29세 미국인 남녀 2천98명을 대상으로 한 '하버드 청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내년 대선 때 "확실히 투표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2020년 대선 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57%였는데 4년 만에 8%포인트나 하락했다. 2020년 대선 당시 30세 미만 미국인의 실제 투표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54.1%였다.



▲ 2020년 대선 당시 투표를 위해 줄지어 있는 유권자들. 사진=shutterstock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게 될 경우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율 하락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WP는 진단했다. 청년층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상 양자대결 시 청년층의 41%가 바이든 대통령을, 3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지지층에서 투표 의향 하락 폭이 컸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66%로 4년 전(68%)과 비슷했으나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수치가 5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인 59% "경기침체 빠진 느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미국인은 그와 달리 경기침체에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폭스비즈니스 방송은 전날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Bankrate)의 최근 설문조사를 인용해 미국 성인의 59%는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일반 미국인들을 확신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소득과 관계없이 거의 같은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연소득이 5만달러 미만인 최저 소득 가구 응답자의 60%, 연소득 10만달러 이



▲ 한 남자가 뉴욕의 한 슈퍼마켓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상 가구 중에서는 61%가 경제가 불황에 빠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X세대(43~58세)는 응답자 65%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있다고 답해 연령대별 분류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밀레니얼 세대(27~42세)는 60%, 베이비붐 세대(59~77세)가 58%로 뒤를 이었다. Z세대(18~26세)는 5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성인 5명 중 3명 이상(64%)이 경제 환경으로 인해 올해 금융 습관을 바꿨다고 밝혔으며, 경제가 침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수치가 81%로 올랐다.

뱅크레이트의 세라 포스터 애널리스트는 "일반 국민들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하며, 지표는 종종 그들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회사 설립
급여 관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사업 운영 전략
예산/재무 계획	IRS, FTB, CDTFA, EDD	재무/회계 상담
각종 세금 관련	세무 회계 감사	사업 가치 산정
	해외자산 FBAR-Report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